

曉星重工業(株), 관리·영업부서 공장 현장근무 실시

曉星重工業(株) (代表 : 柳鍾烈)는 '94. 6. 8일부터 6. 30일까지 4주동안 관리 및 영업부문에 근무하는 전 임원 및 부장급을 대상으로 생산현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류종열 사장의 취임이후 영업력 강화와 생산능력 증대를 추진하며 이의 일환으로 생산현장을 직접 수차례 방문하여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체험하면서 생산부문과 관리 및 영업부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현장근무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동사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현장근무의 목적은 관리 및 영업부문에 근무하는 임원 및 간부사원들이 생산현장체험을 통해 생산현장의 현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관리 및 영업부문의 분위기를 현장에 전달하여 회사 전부문의 수직 및 수평간에 활발한 의견 교류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노사화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이번 생산현장근무 대상 임직원은 사장을 포함한 임원 15명, 부장급 32명 등 총 47명이며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에서 중점적으로 근무토록하고 현장근무시 임원이니 간부라는 의식을 노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직장, 반장, 조장 등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생산현장근무후 작성한 소감문을 보면, 생산현장의 어려움을 말로만 듣다가 직접 체험하게 되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낄수 있었으며, 작업후에 마련한 대화의 시간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주고 받으면서 그동안 맺혔던 사소한 오해들도 풀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대립관계라기 보다는 한배를 탔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향후 업무협조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화합을 통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金星計電(株), 「비전 2000」 수립

金星計電(株) (代表 : 白重英)가 세계적인 인버터생산업체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금성계전은 최근 개발과 생산·영업에 이르는 전부문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세계 10위권 인버터생산업체 진입을 위한 「비전 2000」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성계전은 오는 2000년에 현재 연간 2백억원 수준인 내수판매를 1천억원, 20억원에 불과한 수출실적을 1천억원으로 확대해 2천억원의 매출을 올려 인버터 세계 10위권인 세계시장 점유율 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성계전은 연구개발부문을 중심으로 2000년까지 2백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단계별 제품 개발계획과 해외생산 및 판매거점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금성계전은 기술자립 방안으로 오는 96년까지 기존제품의 품질혁신과 제품의 풀시리즈화, 전문설계 인력보강작업에 나서고 98년까지 퍼지제어기능이 부가된 5세대 인버터자체개발 및 소자 국산화를 이뤄 설계에서 생산에 이르는 첨단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또 20억원에 불과한 수출을 50배 이상 늘려 나가기 위해 96년까지 전문마케팅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북미판매법인을 설립키로 했으며 98년까지 중국 생산판매법인과 북미 및 중국서비스센터를 갖출 방침이다.

二和電機工業(株), 無公害 UPS 개발

二和電機工業(株) (代表 : 裴壽潤)는 비상발전기와 축전지·정지형 반도체로 구성하던 일반적인 UPS방식에서 벗어나 축전지를 없앤 뒤 비상발전기와 특수하게 제작한 인덕터 커플링을 조합해 축전지 없는 무공해 UPS(모델명 디젤 다이내믹 UPS)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화전기가 이번에 공급하는 UPS는 3相 1백KVA에서 2천KVA의 대용량 제품으로 최대 5대까지 병렬운전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축전지로 인해 발생하던 환경공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앴을 뿐 아니라 축전지의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발생과 폭발의 위험성을 완전제거, 유지보수 및 관리비등을 대폭 절감한 것이 특징이다.

이화전기는 디젤다이내믹UPS가 정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데다 20년의 수명을 보장하고 발전기 겸용으로 경제적인 뿐 아니라 특히 컨테이너에 탑재해 이동할 수 있어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기존 대용량 UPS의 경우 예측불가능한 정전보상시간에 대비, 축전지를 비경제적으로 다량설치해야 할 뿐 아니라 축전지의 수명이 짧아 자주 교체해야 하며 축전지 충전시 전력손실이 커 유지보수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코오롱엔지니어링(株), 지하철용 스카다시스템 國産化

코오롱엔지니어링이 지하철용 원방감시제어 (SCADA) 시스템을 국산화, 현재 건설중인 서울지하철 2기(5·7·8호선)에 납품함으로써 이분야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지하철의 변전설비와 전력계통 및 설비의 감시제어장치인 스카다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7호선 및 8호선에 납품을 끝내고 시운전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외국기술에 완전 의존해 오던 이분야의 국내기술의 기술력제고가 이뤄졌으며 이 회사는 앞으로 건설될 3기 서울지하철 등의 선점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지하철용 스카다시스템은 효율적인 변전설비감시제어가 가능하고 운영시스템 전체의 전력계통상태와 운전 계통처리분석과 신속한 유지보수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同社가 공급한 스카다시스템의 하드웨어 사양은 통산설비의 원방감시제어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자기진단기능을 균형있게 구성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였으며 통신설비도 진단기능을 갖추고 처리속도와 용량면에서 안전성을 병행한 9600BPS 이상을 사용했다.

컴퓨터는 최첨단의 중형컴퓨터 기능의 미니급 이상이며 자기진단기능을 보유한 원방감시제어시스템을 변전설비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소프트웨어 부문은 전력 및 운전상태분석을 위해 각 변전소의 상태분석 S/W와 부하수요예측 S/W, 정류기 차단기 자동투입 S/W, 전구간보상 S/W, 부대설비에너지 절약을 위한 S/W를 개발했다.

또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전력설비가본제어용 S/W와 원방 감시제어시스템관리 S/W, 예지정비 S/W, 유지관리 S/W관계형데이터베이스관리 S/W, 부하시뮬레이션을 개발했다.

韓一레벨(株), 차압이용 기체 측정용 유량계측 시스템 개발

유량계 전문생산업체인 韓一레벨(株) (代表 : 金鳳九)는 최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전 자금 5억4천5백만원과 자체자금 2억5천5백만원 등 총 8억원을 투입, 2년여에 걸쳐 기체 유량의 표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차압을 이용한 기체 측정용 유량계측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사가 개발한 기체 유량 표준시스템은 최대 유동률 3만 m³/h에 적용되는 유량계의 품질개선 및 유지상태 등을 종합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정확도가 ±0.1% 이내이다.

이로써 한일레벨은 액체유량 측정분야 국가교정검사기관에 이어 기체 유량 측정분야에서도 국가 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 국가표준소급유지 및 유량 계측제어 분야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 회원사 KS 표시허가 획득 안내 ○

업 체 명	대 표 자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경 동 중 전 기(주)	정 영 수	KS C 8330	가스(SF ₆) 절연부하 개폐기
대 봉 전 선(주)	이 재 봉	KS C 8330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